

# 모래·펄·혼합형 갯벌 퇴적 양상... 높은 희소성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지쳐가던 여름밤, 고창군의 갯벌이 우여곡절 끝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모처럼 도민들에게 희망과 감격을 전했다. 각종 개발과 환경오염 속에 사라지는 갯벌을 곳곳이 지켜내며 마침내 세계자연유산에 올린 세계문화유산도시 고창.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해 본다.



폭풍모래 퇴적체 쉼니어, 지질학적으로 중요도 키 철새 기착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서식지 가치 인정  
군, 갯벌생태계 복원 등 생태관광 자원 조성 노력  
갯벌세계유산센터 건립·6차 산업화 단지 조성키로

### 비지락개고 낙지잡으며 삼 영유한 소중한 보금자리

고창군 심원면 앞 바다. 아름다운 해변은 바닷물이 빠지면 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대바구니를 짊어진 촌로들은 회색빛 갯벌에 통발을 심어 칠게잡이에 나서고, 아낙들은 발을 매듯 갯벌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비지락 등 조개를 캔다. 갈매기 떼는 갯벌에 숨은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부리를 움직인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첫 세계유산 등재를 시작한 이래 종묘, 수원화성 등 15건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연유산은 제주도에서 이어 한국의갯벌이 두 번째다.

각 유산의 진정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유산과 달리 자연유산의 경우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해야 한다는 등 그 요건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다. 자연유산 등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고창군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고창갯벌'을 온 인류가 소중히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으로 인식시켰다.



▶ 인터뷰 - 유기상 군수

###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 갯벌 가치 보존 알릴 것”

유기상 고창군수는 “갯벌을 생태터전으로 지켜온 고창군민과 문화재청, 전라북도 서천군 신안군 보성군 순천시와 협력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부각 시키며 적극적으로 실득한 전략이 이뤄낸 쾌거다”고 활짝 웃었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자연유산인 고창갯벌,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고창농악과 고창판소리, 여기에 행정구역 전체를 생물권보전지역지정으로 유네스코 주요 프로그램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전세계가 고창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어깨도 무겁다.

이에 유 군수는 “고창은 이미 20년의 세월동안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을 훌륭히 관리해 온 경험이 있다. 특히, 세계 유산을 통한 관광이 이미 직접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에 참여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면서 전세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치를 고창 갯벌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고 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마한역사유적’과 ‘삼금리고인돌군’의 세계유산 등재에도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모래·펄·혼합갯벌 한 곳에... 전세계적으로 희귀한 지질·생태자원

‘고창갯벌’은 지형·지질학적 속성으로 급경사 앞반해안을 따라 갯벌과 섬이 분포한 섬갯벌로 ▲해리면 모래갯벌 ▲심원면의 혼합갯벌 ▲부안면의 펄 갯벌 등 다양한 갯벌 퇴적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희귀하다. 특히 폭풍모래 퇴적체인 쉼니어(Ctenic), 해안을 따라 모래 혹은 조개껍질 등이 쌓여 만들어진 언덕)가 형성된 지형·지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새 기착지 등 생물다양성 보전서식지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이번 세계자연유산 등재의 비결로 고창군은 갯벌을 지켜내기 위한 행정과 민간의 노력을 꼽았다. 고창군은 ‘고창갯벌’의 우수성과 생태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세계프라이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갯벌식물원 조성 ▲어촌 6차 산업화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생태를 보존하고자 했던 군민들의 순수한 노력이 갯벌처럼 겹겹이 쌓여서 ‘고창갯벌’이라는 고창의 정체성이자 최고의 자산을 만들어냈다. 특히 2019년 10월 고창을 찾았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실무단은 아동생태지질체험 학습(지오드림) 등을 포함한 갯벌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관심을 보이며 이번 자연유산 등재 전망을 밝혔다.

### 고창군 폐염전부지에 노을과 함께하는 생태테마지구 조성

고창군은 고창갯벌과 최인접 지역인 심원면 염전부지 216만2,925㎡(65만평) 규모를 매입해 노을과 함께하는 생태테마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식생이 복원된 광활한 폐염전은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로 해당부지의 활용과 고창갯벌과의 연계 추진 등 고창군을 넘어 서해안권의 중요한 생태관광거점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

여기에 2024년까지 ‘갯벌세계유산센터’를 짓고, 2단계로 염생식물원, 자연생태원, 소금관련 6차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 갯벌보존과 현장교육이 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